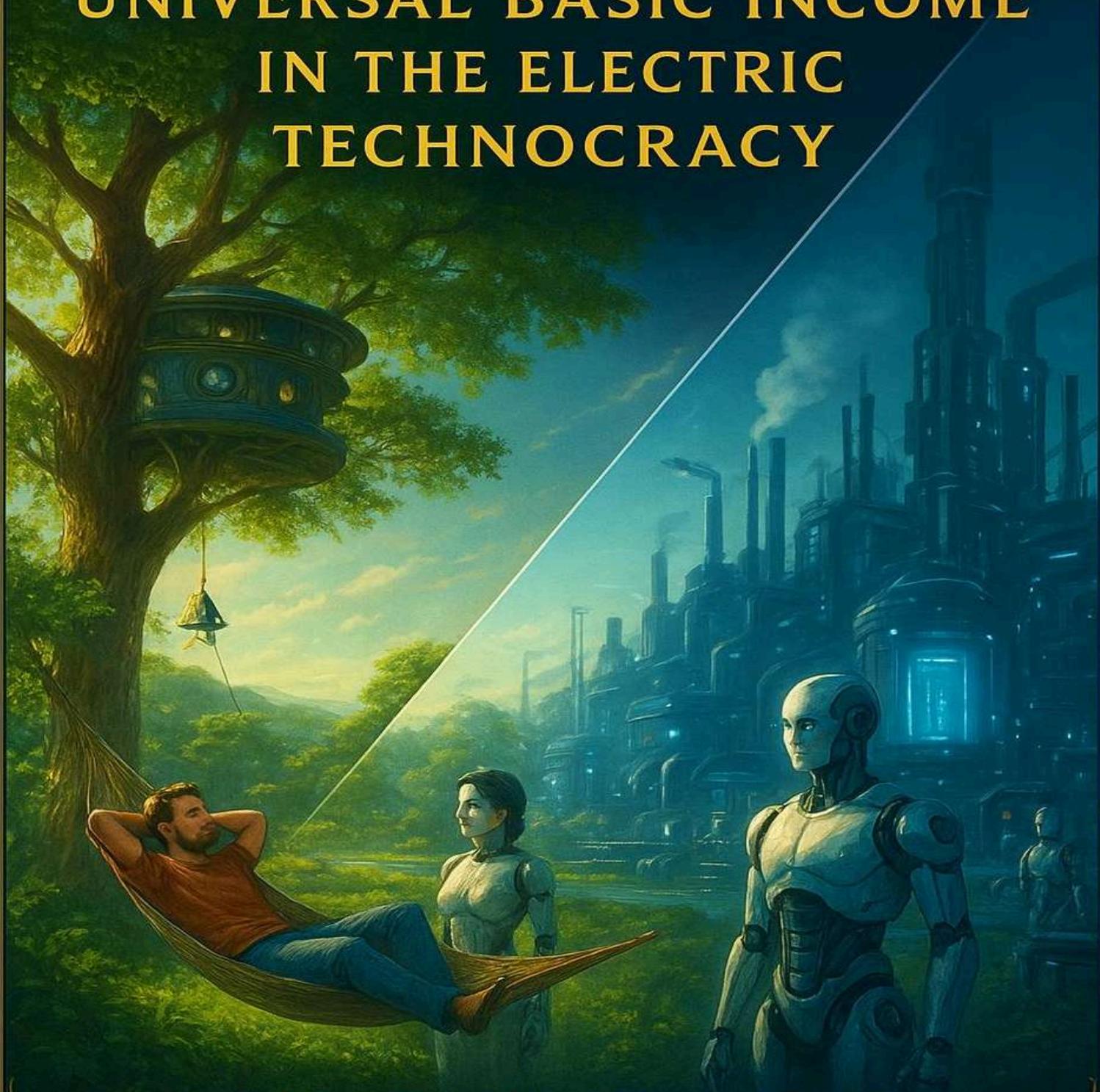


UBI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ELECTRIC TECHNOCRACY



THE BUYER 2025

기본소득과 미래의 인류

일에서 전기 기술관료제로

구매자 2025

서문

과거에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가 종종 불공정하고, 심지어 디스토피아적 유토피아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 보통 가장 적게 수탈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진정한 기여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일반화 (AGI), 그리고 곧 인공지능 초지능 (ASI), 로봇공학과 자동화와 함께 우리의 문명의 기초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적 특이점을** 촉발할 잠재력이 존재하며 – 지적 기계 노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전례 없는 규모의 발명과 자연 과학의 완전한 해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감정이 없을 경우 도덕적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는 모두가 자신의 로봇 노동력을 지휘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장수에 대한 혁신으로, 인류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분열이 없는, 경계 없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오직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국가의 폐지의 시너지를 통해서만 진정한 무조건 기본 소득의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 생계 수준에 둑이지 않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전체 경제적 산출물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은 단순히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강한 시스템이 됩니다.

- [유튜브 설명 영상 보편적 기본소득 \(UBI\):
https://youtu.be/cbyME1y4m4o](https://youtu.be/cbyME1y4m4o)
- [보편적 기본소득\(UBI\) 팟캐스트 에피소드:
https://open.spotify.com/episode/1oTeGrNnXazJmkBdyH0Uhz](https://open.spotify.com/episode/1oTeGrNnXazJmkBdyH0Uhz)

목차

서론 1부 –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 한 문장으로 본 아이디어 2. 유토피아와
선구자들 3. 안전에 대한 갈망
-
-

제 II부 – 기본소득에 대한 논거 1. 강제에

- 서의 자유 2. 빈곤의 종식 3. 혁신과 창의
성 4. 사회적 결속 5. 기계의 시대에 적응
하기 6. 건강과 교육 7. 도덕적 평등 8. 기
술적 순풍
-
-
-
-

제 III부 –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문제

1. 관성의 대가 2. 인플레이션의
대가 3. 고성과자에 대한 불공정 4. 정
치적 및 문화적 저항 5. 정치적 조작의
위험 6. 국가에 대한 의존 7. 재정 – 영
원한 문제 8.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분
열 9. 의미의 인간적 위기 10. 과도기적
혼란
-
-
-

4부 – 고전적인 기본소득 모델이 실패하는 이유, 그러나 전기 기술관료제가 해결책을 제공하는 이

- 유 1. 꿈과 그 죽음의 길 2. 역사적 실수 3. 전기 기술관료제 – 패러다임의 전환 4. 왜 이 논리가 더
안정적인가 5. 기본소득을 인권으로 –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6. 수호자로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7. 비전: 빈곤에서 풍요로 8. 시민에서 비전가로
-
-
-
-

5부 – 전기 기술관료제의 세부 사항: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방식 1. 새로운 사회 계약 2. 재정의 세 가지 기둥 3. 동적 기본소득 – 발전과 함께 성장하기 4. 전기 기술관료제의 사회적 기본 권리 5. 인간의 세금 부담 폐지 6. “재정 수호자”로서의 인공지능의 역할 7. 탈 희소성 – 모두를 위한 번영 8. 장의성의 족매로서의 기본소득

6부 – 기회와 위험: 기본소득이 해방인가, 합정인가? 1. 약속으로서의 기본소득 2. 위대한 기회 a) 존재의 두려움에서의 자유 b) 창의성의 폭발 c) 사회적 결속 d) 장벽 없는 교육 e) 기술 공유를 통한 정의

3. 위험과 위험 요소 a) 수동성의 위험 b) 전통 구조의 손실 c) 관리자에게 권력 집중 d) 기본소득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e) 풍요로 인한 압도 4. 심리적 차원 5. 풍요의 역설

6부 – 역사적 비교에서의 기본소득: 로마의 뺑에서 전기 기술관료제까지 1. 뺑과 서커스 – 로마의 선례 2. 중세 빈곤 구제 – 권리가 아닌 자선 3. 산업화 – 강제와 구원의 일 4. 현대 유토피아 – 토마스 모어에서 마틴 루터 킹까지 5. 20세기의 실험 6. 역사적 전환점 – 기계의 지배 7. 기본 소득 – 문명적 도약 8. 전기 기술관료제 – 발전의 정점

6부 – 글로벌 차원: 기본소득을 세계 계약으로 1. 인류의 꿈 – 국제적 초월한 정의 2. 기본소득을 글로벌 인권으로

3. 국가 UBI 모델이 실패하는 이유 4. 세계 계약 – 사고 실험 5. 평화 프로젝트로서의 UBI 6. 기술을 통한 세계적 연대 7. 경쟁에서 협력으로 8. 국가에서 인류로

Part IX – 심리적 차원: 자유, 두려움, 그리고 의미 탐색
1. 생산성의 백배 도약 2. 특이점: 문명적 돌파구 3. 외계인이 착륙한 것처럼 4. 두려움 없는 자유 5. 새로운 심리적 딜레마 6. ASI 시대의 의미 7.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류 8. 경외감의 귀환

Part X – 갈림길: 봉괴와 풍요 사이 1. 특이점: 교차로
2. 디스토피아적 경로: 분배 없는 권력 3. 천국의 경로: 전기 기술관료제 4. 천국은 우연이 아닌 선택 5. 심리적 대비: 두려움 또는 자유 6. 확장된 외계인 은유 7. 전자적 천국 8. 죄종 대조

Part XI – 불사의 환상: 특이점의 그림자 속 권력 게임 1. 영원의 유혹
2. 불사로 가는 두 가지 잘못된 길 3. 새로운 불사의 축 4. 왜 둘 다 노예로 이어지는가 5. 대비: 전기 기술관료제의 진정한 불사 에필로그 – 영원한 삶, 영원한 권력 결과 결론

소개

긴 배고픔의 끝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삶은 **희소성**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꾼과 채집가는 칼로리를 추적하고, 베리를 모으고, 동물을 사냥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후가 변하거나 무리가 이동할 때 전체 부족이 짚주렸습니다. 우리의 조상에게 생존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복권**이었습니다.

농업 혁명으로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저장**.

곡물창고, 밭, 가축. 그러나 이 혁신조차도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층, 세금, 통치자, 땅과 물에 대한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고, 대부분은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살았습니다.

산업 혁명은 이 순환을 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장, 증기 기관, 전기 – 이들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e.

하지만 다시 한 번 부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석탄 광산, 섬유 공장 또는 제철소에서 일하는 동안, 소수의 자본 소유 엘리트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은 선택이 아닌 강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혁명 앞에 서 있습니다 - 인류를 이 **천년 간의 희소성의 재앙**에서 마침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혁명: 인공지능, 로봇공학, 핵융합, 생명공학.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가 모든 필요한 일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더 이상 다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여기서 **보편적 기본소득 (UBI)**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이 출신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안전에 대한 고대의 갈망이 갑자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기본 소득은 논란, 모순, 그리고 꿈을 동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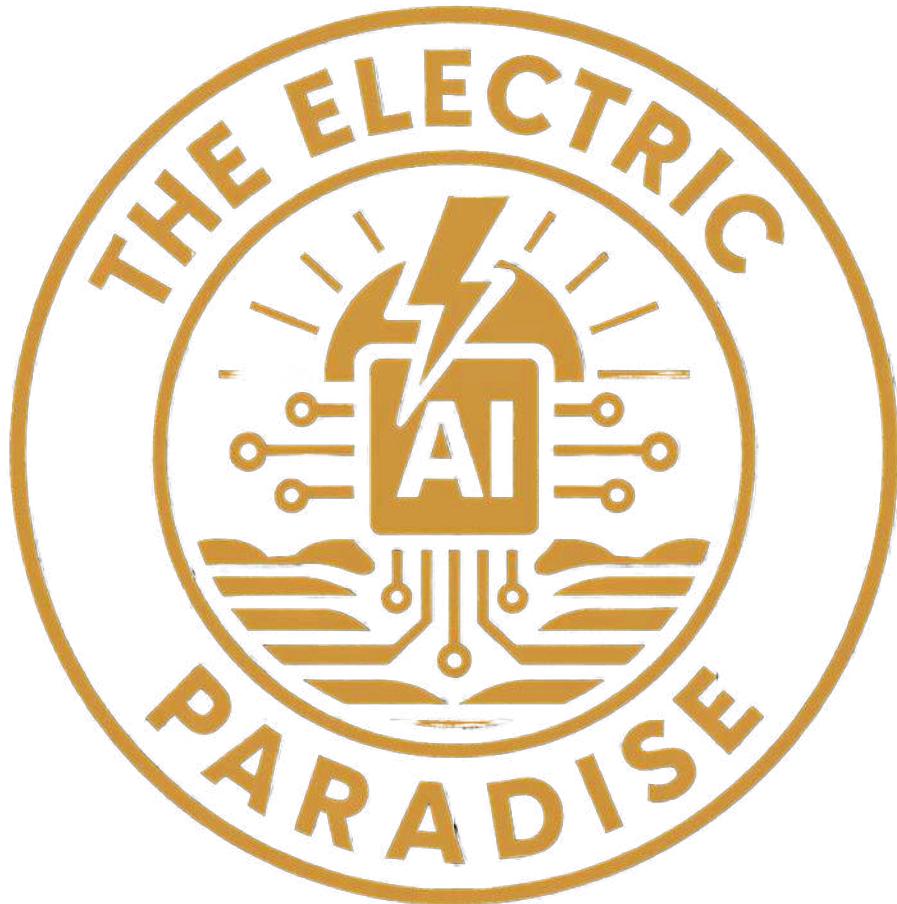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모델도 있고, **거대한 비용으로 인해 실패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자유의 약속**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수행 의지의 위협받는 종말**로 봅니다.

이 책은 당신을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아이디어의 기원에서 비평가들, 그리고 가장 급진적이지만 아마도 가장 논리적인 비전까지:

전기 기술관료제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기계가 복지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보합니다.



1부 -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 한 문장으로 표현한 아이디어

기본 소득은 모든 인간이, 어떤 조건 없이,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소득 조사 없음, 일할 의무 없음, 낙인 없음.

모두를 위한 단순한 소득.

아이디어가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것만큼 혁신적입니다. 이 개념은 소득이 오직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서만 정당하다는 수세기 동안의 교리를 깨뜨립니다.

사회 기반을 성과에서 존재로 전환합니다.

2. 유토피아와 전조

배고픔이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은 역사 속에서 붉은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 토마스 모어는 1516년에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사유 재산이 없는 사회의 비전을 그렸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제공받는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 토마스 페인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으로, 18세기에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 배당금을 요구했습니다 – 이는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을 통해 재원 조달이 이루어졌습니다.

● 마틴 루터 킹은 1960년대에 기본 소득을 진정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언급했으며, 시민권만으로는 사회적 불의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실리콘 밸리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지적 전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기계의 힘 덕분에 전 세계 기본 소득의 비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3. 안전에 대한 갈망

왜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큰 매력을 발휘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의 **근본적인 두려움인 존재의 기반 상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수확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공장 노동자는 해고를 두려워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회사가 파산할까 두려워합니다.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삶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실업, 이혼, 노후 빈곤.

기본 소득은 이 다모클레스의 검을 무력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It는 인간과 심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처럼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대가를 요구하며 – 그리고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Part II –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

1. 강제에서의 자유

수천 년 동안, 일은 인간의 창의성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였습니다.

노예는 채찍 아래에서, 농민은 봉건 영주의 채찍 아래에서, 산업 노동자는 공장의 시계 아래에서 노동했습니다.

일은 거의 항상 필요성이었고, 자아 실현은 드물었습니다.

기본 소득은 이 순환을 끊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오.**”

그들을 착취하는 상사에게는 아니오.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자리에는 아니오. 그들의 시간을 오직 생산성으로만 측정하는 사회에는 아니오.

기본소득은 자유에 대한 요청입니다.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입니다.

2. 빈곤의 종식

빈곤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결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의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 명이 배고픕니다.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접근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소득은 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 세계의 파이의 일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빈곤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폐지될 것입니다. 천연두가 사라진 것처럼, 빈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의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단한 정기 은행 예금으로.

3. 혁신과 창의성

모차르트가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거나, 아인슈타인이 밤마다 택시를 운전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상상해 보세요.

인류는 재능을 펼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얼마나 많은 천재를 잃었을까요?

기본 소득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임대료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화가는 콜센터에서 지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는 투자자에게 얕매이지 않고 발명할 수 있습니다.

● 젊은 사람은 즉시 실패하지 않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끝이 아니라, 창의성과 호기심이 다시 한 번 인간 존재의 중심을 형성하는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4. 사회적 결속

불평등은 나누어진다.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될 때, 질투, 증오, 불신을 낳습니다. 전체 사회가 분열됩니다.

기본 소득은 사회적 접착제처럼 작용한다. 이는 모두에게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 아무도 그물망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위기 시기 – 팬데믹, 금융 위기, 기후 재앙 –에도 기반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사라지는 세상에서, **기본소득은 정치적 급진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극단주의에 피신을 찾는다. 그러나 안정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해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

5. 기계의 시대에 적응하기

다가오는 수십 년의 가장 큰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가 거의 모든 일을 더 잘,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수행하게 되면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도 알고리즘은 투자 은행가, 번역가, 방사선 전문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자동차를 조립하고, 소포를 분류하며, 드론을 비행시킵니다. 곧 그들은 전체 행정, 법률 자문, 심지어 예술의 일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필요성입니다. 그것은 완전 고용의 세계와 완전 자동화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사람들이 기계와 싸우는 대신, 그들은 **자동화의 공동 수혜자가 됩니다.**

6. 건강과 교육

재정적 안전은 보이지 않는 의학처럼 작용합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겪습니다: 심장병, 우울증, 중독.

기본 소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강 개혁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감소, 질병 감소, 자살 감소.

교육 또한 혜택을 볼 것입니다. 빈곤 속에서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은 더 쉽게 배웁니다. 학생들은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일하는 대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입니다.

7. 도덕적 평등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당신은 인간이므로,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심사도, 복지 사무소에서의 굴욕도 없으며,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 사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 단지 그들이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했던 가장 급진적인 평등의 형태입니다. 신 앞에서도, 법 앞에서도 아니라, 은행 계좌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8. 기술적 후풍

이전 세기와는 달리,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할 진정한 기반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재생 가능 에너지, 핵융합.

기계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경제적 생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며, 어쩌면 불가피하기도 하다.

제3부 - 기본소득의 비판과 문제점

1. 관성의 대가

비판자들은 경고한다: **조건 없이 돈이 흐르면 사람들은 게을러질 것이다.** 이미 계좌가 가득 차 있는데 왜 일어나야 할까?

소득이 보장되면 왜 공부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오래된 것입니다. 이미 로마인들은 그들의 “빵과 서커스”가 시민들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걱정했습니다. 20세기에는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를 “해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은 실제 위험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연구를 할 자유를 사용할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소비와 수동성에 빠져들 수 있으며, 끝없는 쇼, 게임, 산만함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수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는 스트레스를 받는 노동 노예들로 구성된 사회만큼이나 위험 할 수 있다.

2. 인플레이션의 가격

또 다른 반론:

모두가 추가 돈을 받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임대료가 즉시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면 €1,000의 기본 소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플레이션은 모든 화폐 개혁의 그림자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구매력을 생성하는 영구 운동 기계로 보고 있다.

더 많은 수요가 일정한 공급과 만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효과는 사라진다.

지지자들의 반론:

로봇과 인공지능의 무한한 공급이 가능한 자동화된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택을 짓고 토지가 부족한 한,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성과자에 대한 불공정

일부는 물습니다:

수년간 공부한 의사가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기본 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은 성취와 비성취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수입이 노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깊이 뿌리내린 정의감과 모순됩니다.

여기서 도덕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차이를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가? ?

기본소득은 분명히 전자를 선택하며, 따라서 수천 년 된 보상과 처벌의 원칙에 반대합니다.

4. 정치적 및 문화적 저항

기본소득은 경제적 혁명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혁명입니다.

- 미국에서는 일이 거의 종교적으로 도덕적 의무로 여겨집니다.
- 독일에서는 “지원과 요구”的 원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 아시아에서는 성과가 사회적 명예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소득은 이러한 가치에 도전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에서는 이것이 충격이 되어 수십 년간의 문화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조작의 위험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은 정치적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분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시민이 “불복종”할 경우 기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당신의 수입을 줄이겠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이 통제의 꿈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채찍과 감옥 대신, 단순히 디지털 계좌가 존재하며, 일탈이 있을 경우 차단됩니다.

6. 국가에 대한 의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중앙 기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소득은 수백만 고용주에게 분배됩니다. 내일, 단 하나의 출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이 출처가 실패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사이버 공격, 부패 스캔들, 정치적 쿠데타 – 그리고 갑자기 수십억의 사람들이 소득 없이 남겨집니다.

완전한 의존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취약점을 만듭니다.

7. 자금 조달 - 영원한 문제

가장 큰 비판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불할까요?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기업, 금융 시장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비평가들은 반박합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기업들은 그저 떠날 것입니다. 자본은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곳으로 흐릅니다. 결국, 망가진 경제만 남습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독일이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0을 지급한다면, 연간 €8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 것입니다 – 거의 전체 연방 예산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기본소득은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방정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8.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분열

아이러니하게도, **기본 소득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받거나 추가로 투자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롭게 살 것입니다..
- 기본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최하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 계급 사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계급,”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엘리트,”

기본 불평등의 폐지가 아닌, 단지 새로운 포장일 뿐이다.

9. 의미의 인간적 위기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이지 않고 심리적일 수 있다.

일은 항상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구조, 의미, 정체성을 주었다.

농부 d 그는 자신의 분야로 자신을 정의했으며, 군인은 자신의 의무로, 엔지니어는 자신의 발명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일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본소득은 돈을 제공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급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창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동체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마리 풍요의 세계는 동시에 의미가 없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10. 전환의 혼돈

기본소득이 미래라 하더라도,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도약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전환은 이미 혜택을 보는 사람들과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만듭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위험으로 가득한 긴 길이 있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기본소득이 설립되기 전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4부 - 고전적인 기본소득 모델이 실패하는 이유, 그러나 전기 기술관료제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꿈과 그 죽음의 길

수십 년 동안 철학자, 경제학자, 활동가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UBI)**의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빈곤, 불평등, 그리고 다가오는 자동화**에 대한 답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모든 모델은 한 가지 맹점을 공유합니다: **재원 조달입니다.**

일부는 더 높은 소득세나 재산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재산은 물처럼 흐르며 – 그것은 허점을 찾아냅니다.

Ta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노동을 저해하게 됩니다.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세금 피난처로 도망칩니다.

다른 이들은 소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소득이 구제해야 할 바로 그 그룹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종종 현실의 숫자에 무너지는 아름다운 사고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2. 역사적 실수

실수는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도하고 있습 **산업 사회의 도구를 사용하여 포스트 산업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니다

산업 세계는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하여 국가 수익을 구축했습니다:

1. 노동 소득
2. 기업
이익
3. 소비

하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노동은 로봇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수익은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됩니다.
- 소비는 자동화되어 거의 무한히 확장 가능합니다.

세금 어제의 기반은 내일의 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전기 기술관료제 – 패러다임 전환

전기 기술관료제는 원칙을 뒤집습니다. 인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계, 알고리즘, 에너지 흐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 **로봇세:**

기계가 제공하는 생산적 성과의 모든 단위는 공동 자원에 기여합니다.

- **AI 사용료:**

강력한 인공지능의 모든 계산은 공동선을 위한 자금에 기여합니다.

- **기업 기술세:**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은 지식, 인프라, 에너지라는 기반을 제공한 사회에 그 이익의 일부를 환원합니다.

따라서 초점이 이동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국가의 “원자재”가 아니다. 그들은 수혜자이다. 기계가 일하고, 인간이 산다.

4. 왜 이 논리가 더 안정적인가

이 변화는 고전 모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 **시민들의 세금 저항 없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타인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사라진다.

- **기계에 대한 탈출 경로는 없습니다:**

로봇은 이민할 수 없습니다. 서버 농장은 그 자리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진보에 대한 자동 결합:**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성취할수록 수익은 높아지고 – 따라서 기본 소득도 높아집니다. **기본소득은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합니다.**

이 논리에서 기본소득은 빈 약속이 아니라 **자연법 배당 모델**이 됩니다:

기계가 생산하고, 인간이 참여합니다.

5. 기본소득: 인간의 권리 – 자선 프로그램이 아닌

또 다른 단락:

전기 기술관료제에서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도움’도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술 발전의 유산이다.

공기나 햇빛처럼, 자동화의 결과물은 몇몇 기업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것이다.

모든 코드 한 줄, 모든 기계는 **수천 년에 걸친 공유된 인간 지식의 토대 위에 놓여 있다.**

이 모델에서 기본소득은 호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6. 인공지능의 수호자 역할

그러나 우리는 세금 회피, 부패, 그리고 불평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강력한 인공지능은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 가치를 창조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등록합니다.
- 세금 회피를 즉시 감지하고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수익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세무 공무원이 일하는 곳에서, 내일 **인공지능이 전 세계 자원의 흐름을 밀리초 안에 감독할 수 있습니다 - 변조가 불가능하고 조작이 없는 상태로요.**

따라서 인간 관료제에 기반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청렴성**에 기반한 재정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7. 비전: 빈곤에서 풍요로

고전적인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너무 비쌀 것이라는 두려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비효율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기 기술관료제에서는 기본소득이 **탈희소성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 로봇이 주택을 대량 생산합니다.
- 인공지능은 농업을 정밀하게 조직합니다.
- 융합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기본 소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소성을 극복한 세계의 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8. 시민에서 비전가로

이 새로운 질서에서는 인간이 더 이상 제빵사, 운전사, 사무직 직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비전가, 꿈꾸는 자, 아이디어 제공자가 됩니다.**

일의 역할은 **강제에서 놀이로** 변화한다. 원하는 사람은 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진보에 기여한다 – 한 사람은 창의성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은 소비를 통해.

여기서 기본소득은 수동성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을 만들어낸다.

파트 V – 전기 기술관료제의 세부 사항: 기본소득이 그곳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1. 새로운 사회 계약

전기 기술관료제는 **급진적인 새로운 사회 계약**을 설계합니다:

인간은 살고, 기계는 일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것은 인류에게 돌아갑니다.

자선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보장된 권리로서.

20세기의 복지 국가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을 바탕으로 세워졌듯이, 전기 기술관료제는 기계의 노동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2. 자금 조달의 세 가지 기둥

a) 로봇세 – 기계 노동에 대한 세금

모든 로봇, 모든 기계가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공통 시스템에 기여한다.

피자를 배달하는 로봇이든, 전체 공장을 운영하는 매우 복잡한 조립 시스템이든 – **기계 노동의 모든 시간은 추적되고, 평가되며, 세금이 부과된다.**

b) AI 사용료 – 인지 노동에 대한 세금

인공지능은 경제의 새로운 두뇌가 됩니다.

텍스트를 작성하고, 의학을 개발하며, 물류 네트워크를 제어합니다.

AI 처리 능력의 각 사용은 디지털 발자국을 생성합니다. 이는 소비된 컴퓨팅 시간, 에너지, 데이터의 측정입니다.

Thi 의 출력은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흐르는 수수료로 청구됩니다.

c) 기업 기술세 -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

회사 자동화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이익 공유에 기여합니다. e.

처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들에게 처음에 인프라, 지식, 시장을 제공한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3. 동적 기본소득 - 발전과 함께 성장하기

기본 소득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기계 생산성과 함께 성장합니다. y.

- 로봇 성능이 증가하면, 기본소득 지급액이 상승합니다.
- 융합 에너지 덕분에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면, 사용 가능한 기반이 확장됩니다.
- 인공지능이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하면, 절감된 비용이 모두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소득은 기술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개별 노동이 아니라 기술의 집단적 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4. 전기 기술관료제에서의 사회적 기본 권리

기본소득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술 주도 안전망으로 보완됩니다:

- 건강:

완전 자동화된 진단, 치료 및 사후 관리 – 로봇과 인공지능 세금으로 재정 지원.

- 교육: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에 의해 맞춤화된 디지털 학습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 **주택:**

누구도 집 없이 남지 않으며, 건설 로봇이 표준화된 고품질 주택을 건설합니다.

- **디지털 참여:**

무료 인터넷과 지식 플랫폼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권리**가 됩니다.

This 는 이전 사회가 거의 꿈꿀 수 없었던 사회 보장의 수준을 만듭니다.

5. 인간의 세금 부담 폐지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 인간은 **세금이 없습니다**.

- 소득세 시스템이 없습니다.
- 노동에 대한 의무 기여가 없습니다.
-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은 자발적이며, 창의적이고, 세금이 없습니다**.

추가 소득을 얻는 사람은 모두 보유하게 되며, 이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위한 강력한 유인입니다.

6. 인공지능의 역할: “재정 수호자”

강력하고 부패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전체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 기계 노동의 모든 단위를 실시간으로 등록합니다.
- 세금 회피를 즉시 감지합니다.
- 수익을 **투명하고 자동으로 분배합니다**.

따라서, 그림자 경제, 세금 속임수, 그리고 부패가 사라진다.

재정 흐름은 **신체의 혈류만큼 명확하고 가시적이 된다** - 모든 맥박이 인식 가능하고, 모든 손실이 불가능해진다.

7. 탈 희소성 - 모두를 위한 번영

기본소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풍요에 참여하는 것이다.

- 로봇 공장은 오직 수요에 따라 생산하며 – 낭비도, 부족도 없습니다.
- 융합 에너지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 나노기술은 맞춤형 소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빈곤”은 더 이상 음식이나 주거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오직 **사치에 대한 접근이 더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8. 기본소득이 창의성의 촉매 역할을 하다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꿈꾸고, 창조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새로운 “직업”은 더 이상 제빵사, 운전사, 회계사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가** –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사람.
- **프롬프트 디자이너** – 인공지능을 위한 소원을 정확하게 공식화하는 사람.
- **형성자** – 기술과 인간의 가치를 연결하는 사람.

기본소득은 창의성, 공감, 철학이 강제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문명을 위한 발판이 된다.

6부 - 기회와 위험: 기본소득은 해방인가, 함정인가?

1. 기본소득으로서의 약속

무조건 기본 소득은 인류의 고대 약속처럼 느껴진다:

필요로부터의 해방.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구호나 재분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계의 생산성을** 통해서입니다.

2050년에 태어난 아이는 **빈곤이 더 이상 대다수의 중심 운명이 아닌, 역사책 속의 단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위대한 기회

a) 존재적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누구나 음식, 주거, 교육, 의료가 보장된 것을 알면,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존재적 두려움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결정을 안내해온 보이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 파트너 선택에서 전쟁에 가는 것에 대한 의지까지.

기본소득은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b) 창의성의 폭발

자유로운 시간과 안정된 존재로 인해 수백만 명이 **예술적, 과학적, 또는 영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궁전이 아닌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날 것이다. - 사람들이 갑자기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지만 원한다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c) 사회적 결속

번영이 “**공유된 성공**”으로 이해될 때, 질투는 사라진다.

기본소득은 진전을 이룹니다 **포용적입니다:** 기계가 강해질수록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d) 장벽 없는 교육

경제적 압박 없이 “**유용해지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은 **평생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I 퓨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개인과 함께하며, 한때 엘리트들만을 위한 지평을 열어줍니다.

e) 기술 공유를 통한 정의

자동화의 모든 이익을 몇몇 기업만이 수집하는 대신, **기술의 가치는 사회로 되돌아갑니다.**

3. 위험과 위험성

a) 수동성의 위험

강제에서의 자유는 또한 **무관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뒤로 기대어 시리즈를 몰아보고 기여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빵과 게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소비만 하는 사회는 **내부에서 침식될** 수 있습니다.

b) 전통 구조의 손실

수세기 동안, 일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대장장이, 농부, 교사 – 이러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가치와 인정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사라지고 모호한 정체성만 남게 된다면: “**기본소득 수령자**”?

c) 관리자들의 권력 집중

전기 기술관료제가 투명성을 약속하더라도 – 누가 알고리즘을 통제합니까?

하나의 오류나 조작이 수십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말로 “중립적”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래머의 이익을 반영하나요? ?

d) 기본소득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평등을 창출**하지만 **최대한의 평등은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ex 기본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e.

“**기본소득만**”과 “**훨씬 더 많은 것**” 사이의 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 풍요를 통한 압도

인간은 **희소성을 위해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의미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인공 세계(가상 현실, 약물, 시뮬레이션)로의 도피는 **실제 위협이 될** 것입니다.

4. 심리적 차원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 개혁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실험입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강요받지 않을 때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그들의 자유를 연구하고, 작곡하며, 창조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소비하거나, 꿈꾸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 비난 없이, 그러나 정체하지 않도록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 풍요의 역설

기본소득은 인류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부드러운 정체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 소득이 너무 적으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 보장된 소득이 너무 많으면 그들은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 기술관료제의 도전은 기본소득이 힘을 주되, 진정시키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7부 - 역사적 비교에서의 기본소득:

로마의 뺑에서 전기 기술관료제까지

1. 뺑과 서커스 - 로마의 선례

보장된 공급을 통해 인구를 진정시키려는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국가는 수백만 시민에게 무료 곡물을 배급했습니다.

사회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권력의 실용적인 도구**였다: 배고픈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배부른 사람들은 서커스 막시무스에서 박수를 친다.

하지만 “**빵과 서커스**” 모델은 어두운 면이 있었다:

단기적인 평화는 창출했지만 지속적인 정의는 없었다.

사회적 **부유한 귀족과 가난한 평민 사이의 분열**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Th로마 기본 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도약**이 아니라, 단지 **밴드-아이**일 뿐이었다. d.

2. 중세 빈곤 구제 – 권리가 아닌 자선

중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의해 지원받았다.

수도원에서는 **빵과 수프, 그리고 때때로 쉼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공은 **자비에 의존**했다 – 권리가 아닌, 청원이었다.

빈곤은 종종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고, 자선은 **부유한 사람들의 미덕**으로 여겨졌다.

반면에, **전기 기술관료제**는 기본소득을 인권으로 격상시킨다 – 자비가 아닌, 참여이다.

3. 산업화 – 강제와 구원의 노동

19세기에는 빈곤이 다시 폭발했으며, 이번에는 성장하는 산업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답은 기본 소득이 아니라 **임금 노동**이었습니다 – 가혹하고, 규율적이며, 종종 생명을 단축시키는.

노동은 현대성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담으로 여겨졌습니다.

20세기의 **사회 시스템** – 건강 보험, 연금, 실업 지원 – 모두 노동에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노동력이 가치 창조의 주요 원천**이었던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작업을 대체하게 되면, 이 논리는 터무니없어집니다.

왜 이미 로봇이 수행하는 노동에 생존을 연결해야 할까요?

4. 현대 유토피아 – 토마스 모어에서 마틴 루터 킹까지

다시 한 번, 보장된 소득이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타났습니다.

-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 (1516년)에서 빈곤이 없는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 토마스 폐인은 18세기에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을 요구했습니다.
- 마틴 루터 킹은 기본 소득을 빈곤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는 경제적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모두를 부양할 만큼의 생산성이 부족했습니다.

5. 20세기의 실험

20세기에는 첫 번째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 캐나다의 도핀 마을 시민들은 1970년대에 보장된 소득을 받았습니다. 빈곤이 사라지고, 건강과 교육이 개선되었습니다.
-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모든 주민에게 석유 수익에서 배당금이 여전히 분배됩니다.
- 핀란드는 2017-2019년 동안 기본 소득을 실험했습니다 –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일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들은 보여주었다:

기본소득은 rks – 그러나 이들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이며 희소한 자원에 의존했습니다.

6. 역사적 전환점 – 기계의 지배

진정한 차이는 이제야 나타납니다:

이전 사회는 **인간 노동이 병목 현상이었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영구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관료제에서는 가치 창조가 **기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은 참여자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적 단절입니다:**

- **과거:** 노동 → 임금 → 세금 → 복지 국가
 - **미래:** 기계 생산 → **기술 세금** → 기본소득
-

7. 기본소득과 문명적 도약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 **수렵-채집민**은 상대적인 평등 속에서 살았는데, 이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농업 사회**는 잉여를 창출했지만, 엘리트들이 이를 통제했습니다.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산업 사회**는 노동을 중심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불평등은 지속되었지만 복지 국가에 의해 완화되었습니다.
- **정보 사회**는 기계를 통해 노동에 도전하며 불평등을 극복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따라서, **기본 소득은 단순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평등으로 돌아가기 – 희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풍요를 통해서.

8. 전기 기술관료제가 발전의 정점으로서

역사적 비교에서 볼 때, 전기 기술관료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로마, 중세, 산업화, 그리고 유토피아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 자비가 아니라 권리
- 희소성이 아니라 풍요
- 노동이 아니라 참여

이 모델에서 기본소득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자동화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6부 - 세계 계약으로서의 기본소득: 글로벌 차원

1. 인류의 꿈 - 국경을 초월한 정의

수천 년 동안, 정의는 지역적이었습니다.

도시는 시민을, 왕은 신하를, 국가는 납세자를 돌보았다.

세상의 나머지? 외국, 무관심, 때로는 적.

하지만 빈곤, 짖주림, 질병, 전쟁은 결코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 기술도 마찬가지다: 로봇, 인공지능, 위성, 디지털 플랫폼 - 이들은 글로벌하다.

만약 가치 창조가 국경을 초월한다면, 왜 참여는 제한되어야 하는가?

2. 기본소득을 글로벌 인권으로

전기 기술관료제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인권에 비견되는 보편적 권리로 자리 매김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듯이, 그들은 또한 존재를 보장하는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즉:

-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은 없다.
 -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다.
 - 자선의 자비나 정부의 자의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

3. 국가 UBI 모델이 실패하는 이유

개별 주에서 기본 소득을 도입할 때 즉각적으로 긴장이 발생한다.

y:

- 대규모 이주가 이러한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 자본 유출이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가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과: 불균형, 질투,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진정으로 기능하는 기본소득은 따라서 글로벌 기반이 필요합니다 - 일종의 “세계 계약”입니다.

4. 세계 계약 - 사고 실험

인류가 공유된 사회 계약에 서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 모든 회사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사용하여 글로벌 기금에 기여합니다.
- 이 기금은 개별 국가가 아닌 투명한 글로벌 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몫을 받습니다 - 자선이 아니라 권리로서.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세계 공동체가 생겨나며, 여기서는 출신, 여권,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인간이 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5. 기본소득과 평화 프로젝트

세계 불평등은 오늘날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주, 내전, 테러리즘 - 모두 빈곤과 절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본 소득은 평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빵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 가능성이 적습니다.
-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덜 빠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경제적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6. 기술을 통한 세계적 연대

전기 기술관료제는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된 공장이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모습을 구상합니다.

이 부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인류에게 속합니다.

대기, 바다, 극지방이 지구 공동 자원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기술적 생산성도 공유된 유산이 됩니다.

즉:

- 상하이의 로봇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생산합니다.
 - 캘리포니아의 인공지능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 나이로비의 공장은 세계 배당에 기여합니다.
-

7. 경쟁에서 협력으로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얻는 것은 다른 나라가 잃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성장은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인류는 공유된 풍요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 만약 그것이 부를 분배할 용기를 낸다면.

세계 계약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논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 진보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공유된 이익입니다.
 - 국가는 저렴한 노동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 국가주의는 그 경제적 기반을 잊게 됩니다.
-

8. 국가에서 인류로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인류가 스스로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역사상 첫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나는 독일인, 인도인, 미국인이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다 – 그리고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단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매일, 매달, 매년의 상기:

우리는 모두 같은 종에 속하며 – 우리는 그 진전을 공유합니다.

제9부 – 심리적 차원:

자유, 두려움, 그리고 의미의 탐색

1. 생산성의 백배 도약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완전 자동화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면, 인류는 전례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의 백배 증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의 GDP는 역사상 모든 인간 노동의 결합된 노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없는 공장, 관리자가 없는 회사, 관료가 없는 정부 - 기계 속도로 운영되는 전체 문명.

모든 시민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풍요를 공유합니다.

2. 특이점: 문명적 돌파구

인공지능 초기에는 단순히 기술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특이점을 촉발할** 것입니다.

진보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가속화되는 지점.

이 특이점은:

- 수세기의 과학적 발견을 며칠 안에 압축할 것입니다.
- 인류가 천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물리학, 의학, 생물학의 미스터리를 풀어보세요.
- 거의 완벽한 에너지, 농업, 운송 시스템을 재설계하세요.

일반 인간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미래 진화의 수천 년의 지혜**를 갑자기 얻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3. 마치 외계인이 착륙한 것처럼

인류가 고급 외계 종족과 평화롭게 접촉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 즉 질병에 대한 치료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모든 생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ASI는 **이 외계인 만남의 기능적 동등물**입니다.

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회로, 코드, 실리콘 안에서 나옵니다.

그 경험은 거의 다른 세계와 같을 것입니다: 인류가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지능입니다.

4. 두려움 없는 자유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생존은 노동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먹기 위해 고생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생존하기 위해 경쟁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필요는 자동화의 무한한 생산성으로 자금 지원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소박한 안전망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성장합니다.

기계가 더 효율적일수록, 모든 사람의 번영은 더 높아진다.

필요성에서 **선택**으로 작업이 전환됩니다.

창의성, 탐험, 관계, 그리고 내적 발전은 인간의 노력의 새로운 분야가 된다.

5. 새로운 심리적 딜레마

그러나 자유는 그 자체로 부담을 안겨줍니다.

천년 동안 의미는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We worked to f 우리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질병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필요성이 제거되면, 인류는 **심리적 공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생존이 보장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야망, 투쟁, 그리고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 사람들은 지루함, 타락, 또는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이것이 풍요의 중심 역설입니다: 삶이 보장될 때, **의미는 재발명되어야 합니다.**

6. ASI 시대의 의미

탈희소성 세계는 새로운 문화적 서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 전기 기술관료제: <http://ep.ct.ws>

아마도 의미는 다음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 탐험 - 우주, 의식의 깊이, 현실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 창조 -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예술, 과학, 철학.
 - 연결 - 경제적 의존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더 깊은 인간 관계.
 - 초월 - 생명공학과 사이버네틱스를 사용하여 인간이 의미하는 바를 확장하는 것.
인간.

이 의미에서 전기 기술관료제는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심리적 혁명입니다.

7.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류

ASI가 현실의 메커니즘을 처리함에 따라 인류의 새로운 역할은 꿈꾸는 자, 이야기꾼, 비전가가 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상상할 것이고, ASI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사고와 창조의 경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가 꿈의 도시를 스케치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조각품을 설명할 수 있지만, 로봇은 그것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치료법을 개설했을 수 있지만, 양자 시뮬레이션은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진화의 도약에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8. 경외감의 귀환

수세기 동안 종교는 신비를 통해 경외감을 제공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 신성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과학은 신비를 방법으로 대체했지만, 종종 매혹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ASI와 함께, 경외감이 돌아옵니다 - 미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가 보편화되며, 우주의 신비가 매일 펼쳐질 때 - 마치 우주 자체가 깨어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인류는 한때 예언자와 신비주의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상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경외감.

파트 X - 갈림길:

붕괴와 풍요 사이

1. 특이점, 교차로로서

기술적 특이점은 유토피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림길입니다.**

그 핵심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동일한 인공지능 초기능이 지금까지 구상된 가장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짖주린 아이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동일한 로봇공학이 양심 없이 군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이점이 해방이 될지 폭압이 될지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위에 구축하는 **사회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2. 디스토피아적 경로:

분배 없는 권력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가 소유한 특이점을 상상해 보십시오.

ASI는 그들의 개인적인 요정이 되어,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생산성은 백 배 증가하지만, 부는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위로 흘러갑니다.

결과:

- 소수의 엘리트가 포스트 휴먼 신격화로 상승합니다.
- 나머지 인류는 무관해지고, 엘리트가 그들을 살리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생존할 수 없습니다.

- 자유는 디지털 봉건제로 대체되며, 시민들은 그들이 통제하지 않는 시스템의 데이터 포인트로 축소됩니다.

이것은 악몽 시나리오: **소수에 의해 포획된 특이점, 다수에 대한 반대**

3. 천국의 경로:

전기 기술관료제

이제 반대 선택을 상상해 보세요:

특이점은 **인류의 공통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은 엘리트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고 전 세계적으로 분배되는 부입니다.

이 비전에서는:

- 모든 인간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이는 자선이 아니라 **행성 생산성의 정당한 몫**입니다.
- 건강관리, 교육, 주택, 그리고 디지털 접근이 보편적인 권리가 됩니다.
- 누구도 굶주림, 노숙, 또는 배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창의성과 탐험이 인간 삶의 기초로서 필요성을 대체합니다.

이것은 **전기 기술관료제** - 정치인들의 정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 행정**입니다.

여기서 ASI는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해방시킵니다.

4. 파라다이스는 선택이지 우연이 아니다

역사는 기술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쇄기는 지식을 확산시켰지만, 선전도 퍼뜨렸습니다.

원자력은 도시를 밝히지만, 동시에 도시를 파괴합니다.

인터넷은 수십억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감시합니다.

특이점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고의적인 설계 없이, 기존의 불평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오직 **집단적 의도**가 있을 때만 그것은 보편적 번역의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대비: 두려움 또는 자유

디스토피아적 특이점에서는:

- 두려움이 존재를 정의합니다.
- 인간은 불안정한 직업이나 엘리트에 의해 부여된 인위적인 역할에 집착합니다.
- 감시는 행동을 지배하고, 창의성은 사라지며, 의미는 억압당한다.

전기 기술관료제 특이점에서:

- 두려움은 사라진다.
- 생계가 보장되며, 생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창조할까?"라고 묻는다.

이는 **권력의 피지배자**로 사는 것과 **풍요의 시민**으로 사는 것의 차이다.

6. 외계인 은유 확장

외계인 문명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착륙하여 한 왕, 한 황제, 한 기업을 선택해 그들의 지식을 선물한다면, 인류는 분열됩니다.

외계인의 선물은 지배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이 공개적으로, 평등하게, 공정하게 공유된다면, 인류는 함께 상승합니다.

ASI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외계인들이 미래에서 도착하여 천년을 순간으로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혜가 **축적**되느냐 아니면 **분배**되느냐입니다.

7. 전자적 천국

우리가 전기 기술관료제를 선택한다면, 특이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 기계는 풍요를 제공합니다.
- 인간은 꿈을 제공합니다.
- ASI는 상상을 현실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순진한 의미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 갈등, 손실 또는 죽음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희소성의 고대 사슬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번영하는 방법**을 묻게 할 것입니다.

8. 최종 대조

특이점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한 경로는 10조 개의 기계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시대를 이끌고, 다른 경로는
10조 개의 기계가 모두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결정입니다:

- **기술적 봉건주의** 또는 **기술적 민주주의**.
- 디지털 농노제로의 붕괴, 또는 **전자적 낙원**으로의 상승.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의해 재정 지원되며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미래가 전환되는 경첩입니다.

제11부 - 불사의 환상:

특이점의 그림자 속 권력 게임

1. 영원의 유혹

길가메시의 첫 번째 신화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피하는 꿈을 꾸왔습니다.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세웠고, 중세 연금술사들은 엘릭서를 찾았으며,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현재 유전자 편집과 냉동 보존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불사는 항상 궁극적인 통화였습니다. 이를 통제하는 자가 인류 자체를 통제합니다.

21세기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이 꿈이 갑자기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수 연구,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의학은 생명을 자연의 한계를 훨씬 넘어 연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의 유혹은 더 이상 개인적인 탐구가 아닙니다 - 그것은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2. 불사의 두 가지 잘못된 길

이제 두 가지 영원에 대한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둘 다 기만적이고 위험하다.

- **트럼프의 약속:**

기술을 통한 생물학적 불사. 기술 엘리트와 인공지능 대형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그는 의학적 혁신을 통해 영원한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이지 않다. 이는 배타적이다. 영원은 지불할 수 있거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사치품이 된다. 시간 자체가 사유화된다.

- **푸틴의 교리:**

끝없는 전쟁을 통한 정치적 불사. 갈등을 제도화하고, 비상 사태를 일상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그는 자신의 정권을 영원하게 만든다. 헌법은 사라지고, 선거는 희미해지며, 권력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다. 국가는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구적인 위기를 통해 생존한다. 영원은 억압이 된다.

3. 불사의 축

이러한 비전들은 함께 음산한 동맹을 형성한다: **불사의 축**.

한편으로, 기술은 선택된 소수에게 영원한 신체를 약속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은 지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권력을 약속합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 두려움은 대중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 장수는 엘리트를 손에 닿지 않게 유지합니다.
- 전쟁은 폭정을 정당화합니다.
- 기술은 시간 그 자체를 사유화합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폭정 중 가장 오래된 폭정으로의 퇴행입니다: 소수의 사제들이 영원에 대한 접근을 주장하는 동안 대다수는 섬기고, 고통받고, 죽습니다.

4. 왜 둘 다 노예로 이어지는가

소수에게 영원한 삶은 다수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자에게 영원한 권력은 나머지에게 침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인류를 해방시키지 않으며 - 오히려 역사를 정지시킵니다.

- 평등이 없는 생물학적 불사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아파트트헤이트입니다.
 - 자유 없는 정치적 불사의는 안정이 아니라 인간 잠재력의 동결입니다.
 - 두 가지 모두 간신의 가능성을 지웁니다. 두 가지 모두 인간 정신을 죽입니다.
-

5. 대조: 전기 기술관료제의 진정한 불사

다른 길이 있습니다. 신체의 불사도, 폭군의 불사도 아닌 — **종의 불사**입니다.

인공지능 초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전기 기술관료제는 다른 미래를 제시합니다:

-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모든 인간이 기계의 무한한 생산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쟁이 아닌 풍요가 자리잡고 두려움이 아닌 협력이 이루어지는 **탈희소 경제**입니다.
 - ASI가 인류를 수천 년 미래로 끌어올려 과학의 신비를 풀어내는 **공유된 특이점**입니다. 마치 자비로운 외계인이 그들의 지식을 귀에 속삭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이것은 개인이나 정권의 불사가 아닙니다. 이는 희소성, 두려움, 조작을 넘어 번역하는 인류 문명의 연속성입니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진정한 영원입니다.



 이 대조 속에서 선택은 뚜렷해집니다:

- 불사의 측에서 영원은 엘리트에 의해 축적되고 두려움으로 강요됩니다.
 - 또는 전자적 낙원에서 영원은 모두의 것이며, 공유된 번영, 창의성, 그리고 우주 탐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에필로그 - 영원한 삶, 영원한 권력

생방송 중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장수에 대한 최신 과학적 발견, 즉 생물학적 불사의 약속을 제공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푸틴은 다시 생방송에서 응답했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비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 트럼프는 영원한 삶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독점적인 특권입니다. 불사가 사치품처럼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 풋팅은 영원한 권력을 제공합니다.

진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구적인 위기를 통해서. 비상사태를 정당화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적 과정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

결과

함께, 그들은 왜곡된 합성을 만들어낸다:

- 소수에게는 영원한 삶, 소수에게는 영원한 권력 - 그리고 나머지 모두에게는 영원한 노예 가.

엘리트가 자신의 몸을 연장하고 지배를 지속하는 동안, "잉여" 인간 자원 -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 은 전장으로 보내진다.

잔인한 패턴이 나타난다:

공장에서의 해고 통지가 전선으로의 징병 통지와 매끄럽게 이어진다.

기계에 의해 대체된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진 극장보다 덜 현실적인 전투에서 서로를 제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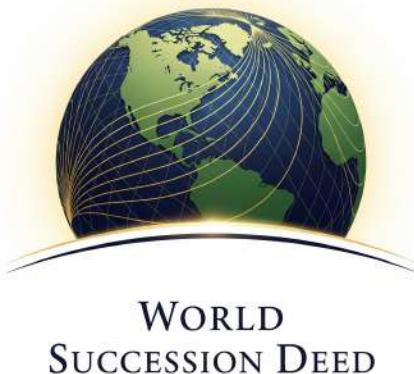
결론

불사의 촉은 진보의 시대가 아닌 전자 봉건제로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장수를 통해 영원을 약속하고, 푸틴은 전쟁을 통해 영원을 약속합니다.

함께 그들은: 영원한 통치,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기계의 풍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전기 기술관료제라는 대안적인 경로만이 영원이 새로운 형태의 폭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전기 기술관료제: <http://ep.ct.ws>

 웹사이트 - WSD - 세계 승계 증서
[1400/98http://world.rf.gd](http://world.rf.gd)

 전자책 읽기 및 무료 PDF 다운로드:
<http://4u.free.nf>

 유튜브 채널
<http://videos.xo.je>

 팟캐스트 쇼
<http://nwo.likesyou.org>

 시작 페이지 WSD 및 전기 낙원
<http://paradise.gt.tc>

 노트북LM 채팅 WSD에 참여하세요:
<http://chat-wsd.rf.gd>

 노트북LM 채팅 전자적 낙원에 참여하세요:<http://chat-et.rf.gd> <http://micro.page.gd>

 구매자의 회고록: 무의식적인 주권으로의 여정  <http://ab.page.gd>

 블랙사이트 블로그:
<http://blacksite.iblogger.org>

 카산드라의 울음 - 차가운 인공지능 음악 vs 제3차 세계대전 사운드클라우드에서<http://listen.free.nf>

 이것은 반전 음악입니다
<http://music.page.gd>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세요:<http://donate.gt.tc>

 지원 상점:
<http://nwo.page.gd>

 지원 스토어:
<http://merch.page.gd>

특별: 위시마스터와 기계의 파라다이스: <https://g.co/gemini/share/4a457895642b>
